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 I)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성 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OMR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답안지의 수험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가능)
-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수정 테이프 또는 연필지우개 사용 가능)
- ◇ 답안 내용 및 답안지 여백에는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쓰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의 불필요한 기표 등을 하지 마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七情)’ 중에서 ‘슬픔 감정[哀]’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겁니다.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쳐도 울게 됩니다.

- 『EBS 국어』

【나】 명령을 내리자 곡성이 하늘을 진동했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숨이 끊어질 듯했다. 형세가 격변하자 왜놈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또한 민가에 들어가 찾느라 두루 헤맸으니, 길숙이 숨지 않고서는 머리를 깎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 나들이를 왔다가도 길에 나갔다 하면 상투를 잘렸으니, 모두 상투를 주워 주머니 속에 감추고는 통곡을 하며 성을 나갔다. 무릇 머리를 깎인 자는 깨끗이 깎이지 않고 상투만 잘린 채 머리카락이 드리워져 마치 장발승 같았다. 오직 부인네와 어린 아이들만 깎이지 않았다. 이때 학부대신 이도재가 상소하여 반대한 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EBS 한국사』

【다】 설령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뭇 손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령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아저씨를 힐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쳤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령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찻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라】 갓난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끼는 ‘정’이란 무엇이었어요?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지요,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히 차 있음을 보리니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요.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으랴?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려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 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 환란, 근심, 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제 조문(弔問)을 제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겁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갑갑하고 엷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랴!

- 『EBS 국어』

【마】 이때부터 진사는 다시는 궁궐을 출입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힌 채 병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이불과 베개에 흠뻑러졌으며, 목숨은 한 가닥 실낱 같았습니다. …… 그날 밤 진사가 들어왔는데,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란에게 진사를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술이 세 잔 정도 돌아간 후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다시 뵈 수 없으니, 삼생(三生)의 인연과 백 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끝났습니다. 만약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저승에서나 서로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사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우두커니 서서 묵묵히 바라보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 『고등학교 문학』

[문제1] 제시문 [나]~[마]에 나타난 ‘눈물’이나 ‘통곡’이 제시문 [가]의 ‘칠정(七情)’ 중 어느 감정에서 표출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8~10줄 (240~300자)> [2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시대 손변이 송사를 맡았는데, 남동생이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어째서 유산을 누이 혼자서 차지하느냐?”라고 하였다. …… 손변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해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박하게 하느냐?”라고 타일렀다. …… 드디어 남매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 『EBS 한국사』

【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적 명분론이란 각자의 직분에 따라 주어진 의무와 규범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지아비와 지어미, 주인과 노비, 양반과 상민 사이에는 각자 지켜야 할 사회적 분수가 있고, 이것이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종적질서 속에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사람들은 인격을 도야한 사족(士族)이 농민을 유교의 가르침대로 교화시켜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남성 및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이 형성되는 데 근거가 되었다.

- 『고등학교 한국사』

【다】 우리나라의 인기 드라마 10편을 선정하여 극중 여성 주인공의 가치관, 가정과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순종과 인내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주인공은 대부분 높은 임금의 전문직, 상류 계급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은 직급이 낮은 사무직이나 외모와 관련된 직업으로 한정되며, 남성은 주로 명령·감독하는 능동적인 모습이고 여성은 그에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학교 교육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접근하는 문화는 그와 다른 것이 현실이다.

- 『EBS 사회·문화』

【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적인 사고와 태도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적 사고와 행동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회관계를 바꾸려면 우선적으로 억압받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 『EBS 사회·문화』

【마】 혈액형을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누는 ABO식 혈액형 구분 방식은 20세기 초 란트슈타이너(Landsteiner, K.)라는 병리학자가 정립한 것이다. 그는 이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ABO식 구분방식이 정립된 몇 년 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둥게른(Dungern, E.V.) 박사는 ‘혈액형의 인류학’이란 논문을 썼다. 그 논문에서 그는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 유럽민족, 즉 게르만 민족의 피는 A형이, 그 반대로 검은머리, 검은 눈동자의 아시아 인종에게는 B형이 많이 발견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A형이 B형보다 유전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게르만 혈통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논리를 폈다. 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이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시사해주는 점이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바】 민우회는 201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위주 낙태정책의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동안 민우회는 모자보건법 14조의 ‘사회 적응 사유’ 포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낙태가 여성의 도덕성만이 작용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결코 아니며, 이 사회의 보건, 복지, 노동정책, 성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낙태를 범죄시하여 음성화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임신 주체인 여성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2]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고, 제시문 [라], [마], [바]를 이용하여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성, 남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가】 다음은 송 황제 진종이 과거 준비에 전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의 일부다.

부자가 되려고 좋은 토지를 살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천 석의 쌀이 놓여 있도다.
편안히 살려고 호사스러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황금으로 만든 집이 지어져 있도다.

과거제가 확립된 송이나 명·청, 조선에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높은 벼슬을 얻기가 어려웠다. 이 시대에 부귀영화의 삶을 꿈꾸던 많은 사람에게 과거 합격은 인생의 최고 목표였다. 과거 시험은 고단한 노력과 많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만 치를 수 있었다. 삼대에 걸쳐 급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30~40년 공부해서 겨우 뜻을 이루는 이도 있었다. 울곡 이이처럼 아홉 번이나 시험에서 장원한 수재가 있는가 하면, 김효홍처럼 76세가 되어서야 문과에 급제한 인물도 있었다.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나】 우리는 재물이나 쾌락 등과 같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비어 있는 항아리가 아니다. 행복만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물음을 무시한다. 삶에는 행복하게 느끼는 것 이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우리의 신념이 정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서가 사실에 근거하기를 원하고, 착각 속에 살지 않고 현실에 보다 정확하게 연결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게 쾌락이나 다른 경험들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실과의 실제적 연결이다. 외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다 큰 행복에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현실에 연결되기를 원한다.

(중략)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과 협동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문명사는 인간이 보다 광범위한 관계에 연계되어 있다는 장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개념은 가족에서 혈연적 소집단으로, 소집단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 질서로 발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감상할 줄 아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배운 사람은 보다 큰 질서의 한 부분인 거대한 영적(靈的) 질서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籍)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것들 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서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히어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사람끼리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不辭)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利害)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盟邦)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無所有史)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고등학교 문학』

[문제3] 제시문 [가]~[다]에 나타난 서로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요약하고, 현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삶의 유형을 제시문 중에서 선택하여 그 이유를 논하시오.

<21 ~ 23줄 (630 ~ 690자)> [45점]